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12% 할인 전격시행

부안군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에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부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월 3일부터 기본 10%에서 12%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해 할인율과 충전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

부안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 모바일 앱과 관내 금융기관에서 충전할 수 있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상향 조정에 맞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가맹점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할인율과 충전한도 상향 혜택은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제42회 줄포 전국 민속

연날리기 대회 개최

줄포면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조순길)가 주관하는 제42회 줄포 전국 민속 연날리기 대회가 오는 3월 3일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2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대표 민속 행사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참여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연만들기 및 연날리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농악공연, 초절기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져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여행 경비 일부 돌려드립니다'

고창군, 도내 유일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공모 선정... 내달부터 본격 운영



고창 청보리밭 전경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공모에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은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고창 고인돌유적, 고창갯벌)을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선운산, 고창읍성, 명사십리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객의 방문을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는 정책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체험 등 관광 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

원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은 온라인 기반 신청·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지역 내 소비 확대 △관광객 재방문 유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 체류형 관광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사업 준비를 거쳐 4월중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전 홍보와 가맹점 확대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공모사업 선정은 고창군 관광정책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며 "관광객 방문이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석 기자

정읍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사각지대 없앤다

체류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매월 보육료 28만원 지급

누리과정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최대 11만8000원 추가 지원

정읍시가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체류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등 '2026년 외국인 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일반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체류 등록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지원 아동'에게도 매월 28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이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장하고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도 훨씬 든든해진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일반 아동은 기존의 정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3월부터 12월까지 시비 70%와 도비 30%를 합쳐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나아가 3세부터 5세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때 발생하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역시 한 달에 최대 11만 8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 보육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 지원 방식도 맞춤형으로 최적화했다. 일반 아동은 기존처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바우처 형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체류 자격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지원 아동의 경우에는 시에서 해당 어린이 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입금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정읍시 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아동은 일반 아동 41명과 미지원 아동 4명 등 총 45명이며, 시는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는 수혜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제107주년 3·1운동 기념식 개최

보훈회관 개관 후 첫 행사

고창군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고창군보훈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번 기념식은 고창군보훈회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3·1운동 기념 행사로, 지역 보훈의 상징 공간에서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군은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독립선언문 낭독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 고창고등학교, 고창자유고등학교, 강호항공고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을 미래세대가 함께 계승한다는 상징성을 더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한 다양한 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석 기자

고창 교육지원청,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세움 주간... 학년·업무별 맞춤형 연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교육과정 중심 학교문화 구축을 위해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세움 주간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2월 10일과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창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및 4층 학력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관내 초등 교원 195명이 참여한다.

연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5~6학년군) △학교자율시간 활용 '우리는, 고창의 세계시민' 교재 활용 △3·4학년 사회과 지역

활동 교재 활용 △1학년 입학초기적응 활동 교재 활용 △1~2학년 한글책

읽교육 지도역량 강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학년별·업무별 맞춤형 연수를 통해 2026학년도 교육과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업·평가 운영, 기초학력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회과 지역화 교재와 학교자율시간 운영 사례를 공유해 지역과 함께가는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석 기자

정읍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시민 618명 대상, 월 최대 18만9000원 지원금 제공

정읍시가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로 선정된 시민 618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월 최대 18만9,000원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를 발급 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모델이다. 공공의 재원과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정읍시는 △아동·청소년 분야(7개, 359명) △노인 분야(3개, 114명) △장애인 분야(3개, 86명) △성인 분야(2개, 59명) 등 총 15개 분야의 서

비스 지원을 통해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판정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용자는 매월 7만원에서 최대 18만9,000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에서 40% 사이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맞춘 세심한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본격 시작

정읍시가 대출 대기 없이 신간과 베스트셀러 등 17만여 종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3월 3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정읍시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돕고 독서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립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교보문고와 연계해 17만여 권 전자책과 3,500여 종의 오디오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구독형 전자책은 대

출 인원 제한이 전혀 없어 보고 싶은 책을 발견 즉시 대기 없이 곧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매달 약 1000종의 신규 도서가 꾸준히 추가돼 시민들의 독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용 방법은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상단 전자도서관 페이지 메뉴에서 '구독형 전자책'을 누르면 피시(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책을 대출해 읽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